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활동



'UN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서관 사례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활동

**우리 도서관은
UN2030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지합니다!**

ifla.org/libraries-development

#Lib4Dev #DA21 #GlobalGoals #UN2030의제 #도서관SDGs

IFLA IAP INTERNATIONAL ADVOCACY PROGRAMME

한국도서관협회는 UN2030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공동 추진목표로, 빈곤, 질병, 교육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환경문제, 기술, 주거, 고용, 법, 경제 사회 문제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17개의 주목표 아래 169개 세부목표를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실천사례를 발굴, 전파·확산하여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확산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내 도서관의 실천사례를 공모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도서관의 사례 및 이미지(초상권)는 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Contents

- SDGs1 | 빈곤퇴치 · 성남시중원도서관 4
- SDGs3 | 건강과 웰빙 ·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5
- SDGs4 | 양질의교육 · ①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6
 ②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7
 ③ 청주기적의도서관 8
- SDGs5 | 성평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도서관「여기」 10
- SDGs6 | 깨끗한 물과 위생 · 도란도란작은도서관 12
- SDGs7 |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4
- SDGs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성남시중앙도서관 15
- SDGs9 |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6
- SDGs10 | 불평등 감소 ·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8
 ② 계명대학교 도서관 20
 ③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22
- SDGs11 | 지속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 성남시중원도서관 24
- SDGs12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25
- SDGs13 | 기후 변화와 대응 · 성남시중원도서관 27
- SDGs15 | 육상생태계 보호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8
- SDGs16 |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 · 성남시중원도서관 29
- SDGs17 | 지구촌 협력 · 성남시중원도서관 30

“중원도서관과 더불어 같이”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연

성남시중원도서관은 사회의 극빈곤층인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희망을 심어주고자 관내 노숙인 자활시설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위한 가르침을 얻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준영작가 강연



노숙인 강의 수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행복나눔 활동 실천

2009년부터 '차별 없는 구호'를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UNICEF) 활동에 동참하고자 성남시중원도서관 이용자들은 매년 12월, 지역주민이 함께 기부행사 추진 후 모금된 전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서가 직접 손뜨개 한 모자를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곤국가의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신생아에게 전달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활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함께 사회공헌에 참여하여 나눔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어 더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유니세프 성금모이기



세이버더칠드런 소개



신생아 모자뜨기 활동

“건강 정보 공유”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정보 공유 - WHO 디지털도서관 구축 지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건강 및 보건 분야 학술정보에 대한 신뢰성, 유용성,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보건으로 현황의 전문적인 정보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서태평양지역 국가 도서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2014년 'WHO 정보문헌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정 이후 의학도서관에서는 'WHO 디지털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WHO 서태평양 사무처에서 발간한 1951년 이후 자료들 중에 인쇄물로만 제공되던 자료들 약 8,689건을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자문서들이 온라인에서 검색이 잘 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였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보건현황 보고서, 보건 정책 보고서, WHO 총회 결과 보고서 등을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전문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iris.wpro.who.int/>)

이러한 지원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쉽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등 의학보건 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http://medlib.snu.ac.kr/who>)

개발도상국 학술정보 공유 - 라오스 의과대학 디지털 도서관 구축 지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라오스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UHS)대학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재정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서울 프로젝트와 함께 라오스 UHS 대학의 연구자가 발간한 연구논문 및 교육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http://laospaceuhs.edu.la/>)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라오스 연구자가 직접 연구물을 등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라오스 연구자의 새로운 연구물의 생산을 향상시켰으며, 필요한 학술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즐거운 영어 책 만남, 책으로! 세계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은 영어특화도서관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여행’을 테마로 한 지식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식나눔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독서전문 사서 1명과 독서동아리 자원봉사자 2명이 주제별로 선정된 영어도서를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합니다. 참여 아동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영어 원서에 대한 자신감 상승 및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책 속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Inter-Cultural Understanding)’을 증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협력을 통해 영어 원서를 만날 기회가 적은 정보취약계층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경력 단절 자원봉사 여성 인재들을 채용해 재취업의 가능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Hello”라고 처음 인사했을 때 매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던 아이들이 따뜻한 엄마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영어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실질적인 영어실력향상까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참여후기를 말하는 복지센터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복지의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엄마 자원봉사자들 역시 본인의 자녀들만을 위한 독서 경험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책읽기 재능 나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 북버디와 함께하는 영어책 읽기



재밌는 영어스토리텔링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과제지원센터’ 운영”

과제지원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은 공교육의 학습지원자로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교과서 이외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지원센터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서, 그리고 교과담당교사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구비하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는 공간을 일컫습니다.

과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9개관이 각각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운영에 필요한 서가 및 도서구입비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도서관 연계 활용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책읽기 활동, 학부모 교육,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 어린이 로스쿨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도서 비치·활용 및 교과연계도서 목록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과연계도서 목록 자료집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9개관) 사서들이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과제지원센터 내 교과연계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 교육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제지원센터 사업 이후 도서관 체험교실 및 정보활용 교육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학습들의 과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협력·연계 초등학교에 교과연계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협력체계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4개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2019년 9개 도서관으로 성장·확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추홀도서관과제지원센터



과제지원센터프로그램 ‘어린이로스쿨’



교과연계목록집읽기

“아이들의 즐거운 삶을 지원하는 이야기보따리&이야기 인형 입양하기 프로그램”

2004년에 개관한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사람과 책이 머무는 도서관, 꿈과 미래를 머금은 도서관, 한 살 아가부터 함께 하는 도서관, 성장하는 도서관, 가정·학교·사회·도서관이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야기인형(인형서거)



이야기인형(이용자모습)



이야기인형(이야기보따리)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나누는 즐거운 책 읽기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서비스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One-stop 서비스로 영유아에게 책 읽기를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테마별 그림책과 그와 관련된 독서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영유아 독서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의 책 읽기 대상 책 선정에 곤란을 겪는 부모(양육자)에게 테마별로 꾸러진 하나의 책 놀이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꾸러미 안에는 테마와 관련된 그림책, 시청각자료, 책 놀이 가이드 등 영유아의 손, 눈, 귀, 등 다중 감각 자극을 주어 아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양육자)가 읽어주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관련된 책 놀이를 진행하면서 보고, 듣고, 웃고, 뛰고, 만지며 오감으로 함께 경험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보따리’가 모두 대출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도서관을 방문한 아이와 가족을 위해 관련 여타의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테마별 브라우징 서가’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같이 책 읽을래? ‘이야기 인형 입양하기’

‘이야기 인형 입양하기’는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 읽지 못하여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흥미를 지원하고, 자신감의 결여로 위축되거나 패배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읽기를 통한 ‘언어 능력의 향상’을 우선하기 전에 ‘정서적인 측면’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실패’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읽기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읽기와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에서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독서 행태를 반영하여 열람실 내에 ‘독서 텐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대상(인형)에게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하기, 표현하기 등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는 ‘이야기 인형’에게 책을 읽어 주는 ‘책 읽어주기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사진 전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칭찬 등과 같은 이러한 과정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야기 인형’에게 책 읽어주거나 이야기 들려주기의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공감, 즐거움, 자기표현 등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여기(HERE)”

성평등을 향한 공간: 성평등 어제, 오늘 내일

2015년 7월 개관한 성평등도서관은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와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단체의 기록들을 수집·보존·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2019년 7월) 90여개의 국내외 여성단체·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110명의 개인기증자들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기관의 정책연구자료, 단체의 현장 활동자료를 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낱장기록물, 포스터, 브로슈어, 배지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www.genderarchive.or.kr) 중입니다.

성평등 기록 공유: 성평등 기록, 시민과 만나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여성살해사건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남겨진 추모메시지 35,000여건을 이관받았습니다. 성평등도서관 내 기억Zone을 마련하여, 과거의 추모메시지를 보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견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 전시로 구성하였고, 메시지를 디지털화 하여 성평등아카이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인근 여성살해사건 외에도 여성운동의 타임라인,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부천시 성고문사건,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전시로 구성하여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페미니즘 시민대학

또 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한 ‘SeMA Collection Lounge’를 마련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외에도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상영, 북토크,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젠더특강을 기획하여 시민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성평등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도서관



성평등도서관 기억존

“생명의 물, 우리가 지켜요”

고리울 찬우물을 찾아라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지구를 생각하는 초록도서관'을 운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경기도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초록지구를 지키는 성숙한 지구인'으로서의 역할 및 행동에 관한 사업들을 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제도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성숙한 지구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도서 전시, '지구의 날'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도란도란 북극곰 데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지구 자원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초고속 발달로 인한 지구환경 파괴,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해 지역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초록 지구'와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초록 지구촌' 가치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7년에는 지속가능한 '초록 지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녹색환경 교육 지도사>강좌를 진행하고, 참가 회원들과 함께 지역 축제 '고리울선사문화제'에 참가하여 <소중한 물 아끼기 - 양치컵 사용해요>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를 알리고,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하게 아낄 수 있는 '양치컵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직접 컵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물 사용량을 알아보고, 직접 나만의 양치컵을 만들어 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커다란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했던 아이들은 자기만의 양치컵을 만들면서 컵 표면에 지구를 그리기도 하고, 나무를 그리기도 하면서, '초록 지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직접 만들어 북극곰이 그려진 양치컵으로 이를 닦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북극곰과 교감을 나누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지구의 초록색도 짙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한 환경 강좌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으로 그동안 미뤄오던 샤워기 헤드를 절수용 헤드로 교체하고 재활용도 좀 더 꼼꼼히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습

니다. 본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초록 지구' 활동에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함으로써 지지를 보내 주시는 지역주민분들에게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에서는 올해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북극곰 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북극곰'과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할 때, 사람들의 삶도 행복해 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물 아끼기 - 양치컵 사용해요」체험행사

“에너지 제로 친환경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구축 및 운영 : 에너지 제로 도전 프로젝트



도서관 옥상정원



도서관 중정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서울 남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물높이 제한을 받아 대부분 건물이 3층을 넘지 못해 지하부터 건물의 층이 시작됩니다. 2003년 신축된 중앙도서관도 지하 3층부터 시작하는데, 지하 4층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이 많이 모이는 밀폐형 열람실과 자료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레 두통과 졸음을 유발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좋은 도서관의 조건은 환기가 잘 되고, 자연광이 잘 비치는 건물 구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가운데가 트여있는 중정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정구조는 마당의 한 가운데라는 말로, 중간이 빈 구조를 말합니다. 이처럼 건물배치를 조밀한 공간 활용 보다는 자연 채광과 개방감으로 이용자 중심 친환경 도서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서관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녹색환경지킴이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Roof Garden)을 설치해 건물 옥상의 단열성을 높여주고 경관을 개선시켰습니다. 옥상정원은 도시녹지를 늘려 공기정화와 열섬 현상 완화 등의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외벽은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녹색 커튼 녹색 지붕 에너지 제로 도전 친환경 도서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캠퍼스 전체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머리도 쉬고 푸른 남산을 보며 눈도 쉬 수 있는 옥상정원 덕분에 자주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도서관 연장개방 비정규직 인력 정규직 전환

성남시중원도서관을 사업소로 포함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며 연령, 성, 국적, 학벌, 종교, 지역, 장애, 인종, 결혼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관련하여 2011년 도서관을 포함한 근로직원 중 비정규직 3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직급 일원화를 통하여 고용안정은 물론 공평한 승진기회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성남시중원도서관은 연장개방에 따라 채용된 6명의 기간제근로자 또한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향기나는 카페 “삼가연정” 오픈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및 기능인재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입주하고 있는 카페의 경우 관내 복지관에서 무상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던 ‘향기 나는 도서관’ 성남시 프로젝트는 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도서관 자판기 설치의 경우 장애인에 한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역사회 상생노력 지속실천

2018년 기준 성남도시개발(중원도서관)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생산품 등 사회적 약자 생산품 우선구매 구입실적이 91.61%로 전 사업부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임용장 교부식



향기나는 카페 “삼가연정”

“4차 산업혁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도서관 변신”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산업 다변화와 국내 기술개발, 연구, 보급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회의 공간과 선후배와의 멘토링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관 구축

메이커는 기술 매니아부터 공예가, 교육자, 텀커러(Tinkerer), 취미공학자, 엔지니어, 아티스트, 학생, 저자, 자신이 제조한 물건을 파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을 포괄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학습, 고민, 설계, 제작, 공유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의미인 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관’을 개관하고 3D프린터, 인공지능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등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은 협업학습공간인 IC Zone, 2016년 다매체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룸’과 ‘멀티미디어 편집 코너’ 등으로 구축된 정보 공유공간 IF Zone, 2017년 동아리 활동 전시회 및 정기 미디어 콘텐츠 상영과 북큐레이션 창의학습 공간 ‘The Lounge MASIL’ 에 이어 학습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의학습 공간으로,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따른 학습공유공간 모델에 따라 구축되어 있습니다.

“필수 교양과목인 ‘소프트웨어와 미래사회’ 수업을 들으며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동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감탄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관이 해결해줬어요. 특히 3D 프린터가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3D 프린터에 눈길이 많이 갔는데 이번 체험관에서 3D 프린터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을 통해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과 미래,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들이 우리 주변 생활속에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래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4차산업 체험 - 드론



4차산업 체험관

“지식 나눔의 장을 활짝 열다. Open Knowledge!”

Open Knowledge?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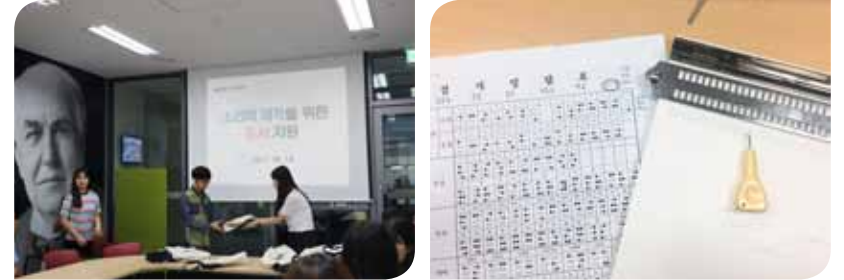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Open Knowledge(OK)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Open Knowledge(OK)란, DGIST의 이용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를 강연이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나눔활동을 의미합니다. 강연자가 도서관 홈페이지 ‘Open Knowledge’ 게시판에 강연공지를 올리면 도서관에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청중을 모아 줍니다. 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이나 특강, 세미나 등도 O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착한 지식 나눔

OK 서비스 중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을 위해 DGIST 기초 학부 재학생, 대구점자도서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소리책 제작을 위한 도서를 지원했으며, 점자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열린 점자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리책을 제작하며 시각장애인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동참하고, 점자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배우고, 직접 느끼며 체험했습니다.

착한 나눔을 전하다

활동을 마치고 점자교육과 소리책 제작 활동의 결과물을 많은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소리책과 점자 소개 포스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영상을 전시하고, 점자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내외 인식 개선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모아 향후 무형의 지식을 가치화하고 공유하여 유형의 지식으로 창출해, 가치화된 지식을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 ‘D-Curation’(<https://curation.dgist.ac.kr>)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공유·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리책 제작을 위한 도서 지원(2017년 6월)과 점자교육(2017년 11~12월)

[2017 착한 소리책 전시회]

[2017 착소권 구성]

[소리책 전시]
문화의향에 직접 녹음된 도서를
실용 도서, 도서 소개와 함께
함께하세요!
당첨시 열람실에서는 도서를
선택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점자 배우기 & 체험]
당첨의 책사, 열람을 위한 보조
받은 책을 배우고 직접 기구를
이용해 출간된 후엔 소리가
크고 읽기보통으로 읽거나
같은 키보드 열람을 하

[영상 상시 재생]
소리책, 점자, 시각장애우, 전시
도서의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물
모아두었습니다! 시간 날 때
감성해 보세요!

[어벤져스 '나의 이름은']
[영상은 바로 여기]
어벤져스 영상은 영상자료실
각종 영상, 영화, 방송물
자료, 추천작을 읽고, 추천작에
관심은 '나의 이름은' 영상물
추천을 통해 추천작에
추천내용을 추천합니다!

[소리책 동아리 '읽:다']
소리책 동아리 '읽:다'는 소리책을 '읽'어 세상을 '읽'고자 헌신
동아리로, 시각장애우를 위해 도서를 녹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 년 간 녹음된 녹음 도서를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들여 시각장애우의 다른 언어인 점자를 간단히 배우보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DGIST 구성원분들과 1년 간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 느꼈으면 합니다.

소리책 동아리
읽:다
읽어 · 읽다

착한 소리책 전시회 포스터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사업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가진 인적 자원(사서, 학생)을 활용하여 지역의 낙후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구·경북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교회 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을 대상으로 동산도서관 사서들의 업무 노하우와 재학생들의 재능을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전수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사서 2명, 대학생 7~10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의 학교, 교회, 기업체, 작은 도서관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장서점검, 서가정리, 도서선정, DB구축, 독서지도, 벽화그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673명으로, 수혜 도서관은 121개관이 됩니다.

전공자도 없이 입주민들로 이루어진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막막했는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으로 우리 아파트 도서관이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지역의 도서관을 위해 애써 주는 것이 대학과 지역 사회의 진정한 상생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달서구 월성월드메르디앙 도서관장 오명조)

‘독서가 공부를 이긴다’는 철학으로 반 아이들과 늘 도서관 탐방을 즐기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는 우리 학교에서 책을 제자리에서 찾이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서 선생님 혼자서는 대출 반납 업무만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전문 사서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장서점검과 서가정리를 해주고 간 뒤 아이들과 필요한 책 찾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나 사서 선생님께 책 어디에 있는지 묻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오는 경험을 하며 많이 뿌듯해했구요. 이러한 교육기관간의 협력이 많이 늘어나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자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대구 유가초등학교 교사 조영랑)

우리 도서관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이라 장서의 양이나 다양성 면에서 차별화 된 도서관입니다. 그렇지만 운영 인력은 많이 모자란 편이라 늘 힘들었는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혼자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 담당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이 규모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지역 도서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서구 다문화 가족도서관 사서 이혜인)

2020년은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사업이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의 사업이 낙후된 도서관을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사업도 변화해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을 활용하여 클래식 공연, 미술 수업, 독후활동 등에 중점을 두어 도서관에서의 문화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대학도서관 맞춤형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경성대의 외국인 유학생(약 1,500명, 재학생 10명 중 1명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학습활동 지원 등 질적 서비스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경성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습활동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투어와 도서관 교육



이벤트 포스터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및 강의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초 수업시간을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신입생들이 도서관 출입이나 자료대출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도서관 투어를 진행해 각 학과별 전공도서 및 층별 자료실 소개, 열람실 및 스터디룸(세미나실) 등 외국인 유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교수가 수업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 내에서는 자료 구입에 어려움이 존

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방학 중 외국인 교수를 통해 수업 교재 구입을 사전에 실시했으며 도서관 교육 중 수업자료를 전시하였고 학과별 수업 교재자료 리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고문헌 작성법, 학술DB 활용 및 자료 검색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영어로 진행(컴퓨터 실습교육)하는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홍보 포스터나 이벤트 부스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 자료를 만들었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학생 신분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지만 언어의 장벽과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한국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으나, 도서관에서 진행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차별 없이 불평등을 줄여 한국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넘어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학생과 외국인학생의 구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여행 · 지역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중원도서관 여행 · 지역자료 상시 코너

성남시는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 분야를 지정하여, 분담 구입으로 자료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서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중원도서관은 <여행 · 지역자료> 코너를 개설하여 현재 성남시 지역자료를 포함한 약 4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성남시 연표는 현재까지 800여개의 데이터(연 2회 갱신)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30여 권의 도서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예정으로 지역 역사 및 문화자료에 대한 보전 및 전송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여행이야기

2019년 주요사업으로 여행 · 지역정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체험하는 여행이야기, 도서관에서 들려주는 여행이야기, 도서관에서 보여주는 여행이야기,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여행이야기 등 4개의 테마로 특강, 전시, 스토리텔링 키즈 콘서트, 인문학 강의 등 각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여행자료 · 각국 대사관 및 관광청 한국사무소 발행 관광지 안내 자료 등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배포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자료 수집



지역자료코너



지역자료코너



지역자료코너

“이제는 그린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지구를 아끼는 방법을 나누어요”

지구별 나눔장터- 내가 쓴 물건들이 지구 한바퀴

봄과 가을에 걸쳐 일 년에 두 번, 도서관 앞에서는 재활용장터가 열립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생활용품, 그리고 옷들을 가지고 나와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도서관이 위치한 원곡동은 지역주민의 78%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도서관의 이용자 90%가 국제이주민입니다. 이들 중에 50% 이상이 이주노동자이고, 30%의 결혼이주민과 20%의 이주배경 어린이 및 청소년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특히 가을에 열리는 나눔장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1,000원으로 커다란 모자가 달린 후드티나 솜바지, 때를 털 타는 짙은 색 점퍼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어 보는 털 달린 옷들! 그들이 기대하는 겨울이 도서관의 지구별 나눔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터에서는 고향에 있는 아이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바쁜 이주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커버려서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주인을 떠난 옷들이 이들이 이주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학용품과 함께 트렁크의 한 칸을 차지합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내어놓은 물건들이 새 주인을 만나 지구 반바퀴를 여행가는 셈입니다. 이 물건들은 새로이 이주노동을 하러 오는 친구들을 통해 다시 한국으로 와, 떠나간 일 년 뒤쯤 도서관 앞 장터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새주인을 만나고 만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셈이지요. 이 사업이 벌써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나눔장터 2019



지구인수어합창단

잠들어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내가 쓴 물건들이 지구 한 바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독서와 도서관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운동 전개를 위한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저탄소 친환경생활 문화를 정착하고자, 도서관을 ‘저탄소 친환경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그린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린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새로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잠들어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날개달린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참여자가 일하고 있는 딸기 비닐하우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라 매우 더웠는데, 그녀가 저에게 내민 물 한 잔은 갈증과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컵 속에 담겨있는 물은 금방 미지근하게 데워져, 다시 마시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이 분들에게 텀블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돌아와서 이용자분들에게 물어보니 새것이라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가지고 있는 텀블러가 3-4개는 있다고 하여,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모아 상대적으로 농어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나눔을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보냉보온 효과가 있는 텀블러를 선물 받아,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1회용 물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데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에서 중심이 되어, 이주노동자들과의 환경과 자원순환에 관련된 책임기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실제 생활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그린라이브러리- 내가 쓴 물건들이 지구 한 바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 관련 도서 발굴과 북큐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 누구나, 관련 도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교육의 지속력을 도모하고, 관련 책들을 북큐레이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그린라이브러리운영과 출신국의 자원재활용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후속 모임을 열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끼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 꼭 필요한 것은 있는 도서관, 그린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녹색 생활을 실천하다”

시민과 함께, 그린 데이를 그리는 중원도서관

성남시 중원도서관은 녹색생활 실천의 날(Green-day)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야근이 없는 날로 정하고 오후 6시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식시간과 퇴근 1시간 전 냉난방 끄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가전 및 폐건전지, 폐토너, 폐휴대폰 수거와 대기전력 차단, 이면지 활용 등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지구 만들기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2000년 초 자율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부터는 전 직원이 선택 요일제와 끝 번호 요일제 중 선택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코드라이브 실천 및 생활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세척 제정, 관용차량 정기점검, 녹색 운전 홍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9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력의 일환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공사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과 녹색제품 구매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아가 환경영향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량 분석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활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음세대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시퇴근 부서별 문화활동



1회용 컵사용하지 않기 운동



전사적 LED 조명 교체

“함께 하는 약속, 공정무역”

소통, 나눔, 기쁨 아동노동 공정무역

성남시중원도서관은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 아래 다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자 불공정거래 근절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근절활동 중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무역’을 통한 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중원도서관은 소통, 나눔,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용자와 함께 2013년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대상도서로 『나쁜 초콜릿』을 선정하여 한 해 동안 시민들과 토론품으로써 역사를 거슬러 초콜릿 산업과 공정무역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제구조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하여 세계 시민교육 <아동노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책속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희망의 티셔츠 만들기



한책독서토론회

착한소비, 행복한 동행, 공정무역

2018년 도서관주간에 지구촌이 전쟁이나 착취를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치교육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행복한 카카오 농장이야기’ 원화 전시를 한 달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18년 4월 문화가있는 날 행사에 착한소비, 행복한 동행이라는 초콜릿, 커피 나누기 체험행사와 관련 영화상영, 공정무역이란 주제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부터 성인까지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속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공정무역 초콜릿-커피체험



「공정무역이란?」특강

“녹색복지 녹색도서관”

녹색복지와 생태문화 확산 프로젝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녹색복지와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사)숲생태지도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생태교육과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녹색복지 실천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전문 과정)와 힐링 숲 남산 체험 프로그램, 생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지원, 기타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도서 기증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구축 사업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중구청, 필동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구 관내 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싱그런 산책’과 ‘다문화 가족과 학생들을 위한 싱그런 여행’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강의와 이론 중심이 아닌 남산에서 힐링과 치유를 위한 숲 체험기회를 갖고 자연의 소중함과 녹색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중구가족 독서나눔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구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작 배포하는 운동을 도서관뿐만 아니라 캠퍼스 속에서 전개하고 있고 도서 나눔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유경제 실천과 독서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하는 대학도서관 구축 사업은 도서관이 대학 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 활동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로 정착하였으며, 학교, 지역기관과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증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숲해설사



“다름을 존중하는 중원도서관”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교실 / 동화구연 지도자 자격증 과정

성남시 다문화인구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늘어나 2018년 말 현재 3만명에 이릅니다. 성남시중원도서관은 다문화인구의 다수가 거주하며 비교적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동화구연지도자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산책

2010년 다문화한가족실을 만들어 3,07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밖으로는 한국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행사시 다문화수강생 및 지역다문화협동조합 단체와 협업하여 지구촌 각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초등학교를 방문하거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와 각종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나눔 도서기능

2016년부터는 대만 가오슝 세종학당 등 7개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역사·문화·한글교육에 필요한 도서 594권을 기증하였으며, <경기도 진로독서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 등에 4차 산업 관련 미래 유망직업 주제로 강의와 함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원도서관은 지구촌 공동체의 가족으로 또 포용사회를 꿈꾸는 일원으로 국제화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등장에 따른 매체 활용 서비스 등 관련수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수업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부모와 함께하는 세계문화&음식체험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활동

발행처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일 | 2019년 10월 16일
 등록 | 제2-723호(1979. 8. 1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홈페이지 | www.kla.kr
 인쇄 | (주)계문사(02-725-5216)
 ISBN | 978-89-7678-377-6 93020

무단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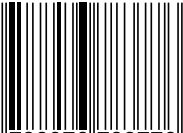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 SNS    @kla1945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활동

ISBN 978-89-7678-377-6

비매품



9 788976 783776